그리스도 왕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뉴스 (17호)

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36길7
발행인: 이계철 라파엘 주임 신부님
편 집: 시흥4동 성당 기획, 홍보분과 편집실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sh4d

부채로 미래의 보배인 청소년 지원과 수도자 모시기 큰 장벽

시흥4동 성당은 11월 18일(주일) 주임신부님과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재적 17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2층 요한실에서 사목협의위회 회의를 가졌다.

시작기도와 루가복음(18. 35, 43) 봉독 후 사목회장의 인사와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제12대 사목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많은 의제로 인해 장시간 회의의 우려가 있어 각 분과별로 사전 서면보고한 내용을 확인·점검 하고 특이사항이나 특별 건의사항만 토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워크숍에서 산정하지 못한 청소년분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분과는 교구나 본당차원에서 많은 재정투자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본당의 부채금 압박이 있어 현실적으로 아쉽다. 고심 끝에 1,720만원으로 예산을 결정했다고 수석 부회장과 재정분과장이 발언하였다. 각 분과위원들은 이를 격려하며 1,750만원으로 청소년분과의 예산결정에 동의하고 의결하였다. 남성구역분과에서는 일치와 화합의 일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주임신부님은 내년 본당의 당면사안으로 살레시오회 수녀님이 파견 직능근무로 토·일요일에 출퇴근하여 청소년과 제전 예비자 교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숙박은 하지 않으나 잠깐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수녀원에 집기를 구비하고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본당 사목목표는 전 교우들이 지키고 실행 할 수 있는 짧은 목표를 대림 첫 주에 발표하겠다. 2019년 사제서품식이 끝나면 본당에도 보좌신부가 파견될 것이며 연간 3,000만원의 보좌 성무활동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님신부님 초빙에도 연간 500만원의 제전비가 소요되는데, 보좌신부는 본당 상환부채 관계로 인해 사제교육이나 피정 등으로 부득이 사제가 없는 평일(연간 약 20일 정도)에는 공소예절을 바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성탄절 구유제작은 기획홍보와 시설관리 전례분과가 맡고, 단체별 성당 곳곳을 예쁘게 꾸며 주시면 성탄대축일 미사에 시상하겠다. 데이케어 2층 회합실 칸막이, 옥상 누수공사도 회장단에서 데이케어와 논의해야 하며, 남성 단합 백령도 계획은 보류한다고 말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① 보좌신부님 차후로 연기 ② 공소예절에 사제 없이 성체분배자가 성체만 분배 ③청소년분과장은 11월25일 청년연합총회, 12월1일 주일학교 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구하며 마침기도와 주임신부님의 축복으로 사목협의회 회의를 마쳤다.